

## 21세기 대중문화와 병영문화의 현실과 상호관계 (기독교문화의 관점에서)



임성빈 목사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청년들의 문화적 역량이 확장될수록 전통에 젖어 있거나 기존의 문화와 형식에 익숙한 어른들이 느끼는 문화적 소외감이나 거리감은 커져 간다. 이러한 문화적 거리를 좁혀서 사회의 유기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최근 우리 사회가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문화의 흐름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 약력 : •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교(Ph. D.)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문화선교연구원장

급변하는 문화변동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지 사회적 통합의 과제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한국 교회로서는 21세기라는 새로운 정황 속에서도 복음의 정체성을 적절하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목회적, 선교적 사명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문화변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사회문화변동에 대한 무감각과 부적절한 대응은 결국 교회의 정체성 위기와 함께 선교적 위기를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새로운 문화적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N세대'와 그들의 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N세대는 이전의 세대들과는 여러 의미에서 차별성을 갖기 때문이다. N세대의 차별성에 대한 연구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선교의 전제가 된다. 본 소고의 목적 중 하나는 이른바 N세대로 상징되는 새로운 사회문화에 대한 분석과 신학적 해석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21세기적 정황 아래에서의 적절하면서도 통합적인 복음 소통(communication)의 사역 일부분을 담당함을 모색함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N세대가 주축이 되고 있는 병영문화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N세대 문화와 병영문화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은 현재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 분석과 함께 해결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대간의 화합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교회의 적극적 선교 역할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I. N세대 문화의 정체성

### 1. N세대란 누구인가?

‘N세대(Net Generation)’라는 명칭은 새로운 소비층과 트렌드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의 소비산업영역에서 최초로 사용한 용어이다. 따라서 자연히 미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용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와 다른 문화적 상황에 대한 적절한 비판과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

#### (1) 미국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N세대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사회학적인 세대 구분은 이른바 ‘베이비 붐(Baby boom)’ 시기를 기준으로 시도되었다. 1945년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경제호황과 함께 TV 등 방송매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한 세대를 ‘베이비 붐 세대’라고 통칭한다. 1946년에서 1964년까지의 20여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세대에 속한다. 또한 1965년 이후 갑자기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갖게 되는 세대를 ‘베이비 버스트(bust) 세대’라고 부른다. 이어 1977년부터 최근까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어른이 되어 출산을 하는 때를 베이비 부머의 메아리가 전해졌다는 의미로 ‘메아리 세대’로 지칭한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N세대는 바로 이 메아리 세대를 의미한다.<sup>1)</sup>

한편 X세대, N세대라는 구분은 미국의 소비산업의 마케팅

과정 속에서 시작되었다. 사실 전통적인 학계에서는 X세대, Y세대, N세대라는 구분에 내재한 상업주의적 발상과 기획 의도를 비판한다. 그러나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얻어 소비와 이윤 창출에 힘을 기울이는 각종 매스컴과 기업들에 의해서 관용어로 굳어져 가고 있는 형편이다. 비록 이러한 구분들이 소비를 더욱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조작되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문화가 시기적으로 고유하고 독특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상업주의적 산물이 라고만 말할 수도 없다.

보통 베이비 부머에 연이은 베이비 버스트 세대가 ‘X세대’에 해당한다고 본다. X세대는 기성세대(베이비 부머)와 이질적 형태의 문화를 가지고 살며, 자기중심을 지향하면서 소비에 아주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어 ‘Y세대’는 메아리세대와 대응하며,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출생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 마케팅 관점에선 이 Y세대를 잘 공략하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지출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며, 전략적으로 X세대와 Y세대를 구분했다.

‘X세대’ 곧 버스트 세대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세대이다. 그러나 막상 이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1980년대는 미국 경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배운 지식과 성취욕구는 높았지만 높은 실업률로 인해서 큰 좌절을 맛보았다. 이러한 사회적 동요나 불안정에 이들은 나름의 대응방식으로 저항문화를 보여주었고, 이들의 문화적 특성이 기존의 문화적

1) 돈 탭스콧, 허운나, 유영만 옮김, N 세대의 무서운 아이들(폴푸레, 1999), 52-58.

특성에 견주어 볼 때 마땅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X세대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어진 메아리 세대는 21세기의 주역이 될 세대라는 의미에서 'Y세대'로 불렸다. 그러나 이 이름은 대중적 호응을 받지 못하였고 곧 'N세대'로 흡수되었다. 미래학자인 돈 탭스콧이 지은 <N세대의 무서운 아이들(*Growing Up Digital: Net Generation*)>이라는 책은 본격적으로 N세대를 다루면서 그 세대의 특성과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이 확장됨에 따라 N세대는 인터넷 시대의 주역이라고 평가되었다.

최근 마케팅 영역에서는 N세대라고 하기에는 어리지만 8세에서 14세 사이인 'Z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사이(between)에서 유래한 트윈(tween)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는 맞벌이 부모 밑에서 성장하여 독립심이 강하다. 이들은 앞 세대보다 더 이른 나이에 쇼핑 등에 있어 의사결정권을 갖고 구매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의 대상이 된다.

## (2) 한국적 상황과 N세대

한국에서 N세대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독특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이는 386세대가 X세대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고, 다른 이는 베이비 붐 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는 베이비 붐 세대는 우리의 386세대 또는 한국전쟁 후 1955년부터 5·16사건이 있던 196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장으로 나뉜다. 미국사회에서 20년 간격으로 사회적 특징을 베이비 부머, 베이

비 버스트, 메아리 세대로 나눠 구분할 수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근대와 후기 근대를 거의 동시에 경험하고 있듯이 세대적 특징도 혼합적으로 당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통시적으로 구분되는 시기적 특징이 포착되지 않으므로 사실 한국에서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세대를 구분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미국의 X세대가 보이는 문화적 특징과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도 1990년대 초반에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렸고, 부모 세대에 비하여 훨씬 풍족하게 자란 세대가 X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문민정부로 상징되는 민주화가 가시적으로 진전될 무렵 20대를 시작한 행운의 세대를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학 졸업 후에 갑작스럽게 닥친 경제위기로 인하여 취업에 곤란을 겪은 세대이기도 하다. 200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연령적으로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에 속한 이들은 이전 세대들, 그 중에서도 바로 위 세대인 386세대와도 문화인식과 양상에 있어서 뚜렷한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른바 '386세대'는 현재 30대(혹은 40대 초반)로서 1980년대 대학을 다녔고, 1960년대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한다. 1980년대에 대학 생활에서 나름대로 민주화도 경험했지만 유신은 경험하지 않아 유신을 경험한 세대와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낡은 세대라고도 불리는 지금의 40대, 즉 457세대는 1950년대에 출생하여, 1970년대에 대학시절을 보내면서 유신시대 속에서 급격한 시국변동과 많은 시위를 하며 지낸 세대지만 그들의 당대에는 시대 변혁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한 뿌리 깊은 좌절감을 가진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386세대는

6.29선언 이후 실질적인 민주화를 성취함으로써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 세대와 구별된다.

결국 한국에서는 미국과 같은 세대 구분, 예컨대 베이비 부머·베이비 버스터·메아리 세대로 이어지는 연계적 세대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 도리어 구세대와 신세대로 크게 나눈이 사회문화변동의 추이를 차별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X세대 이후를 신세대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 세대의 차별적 특징은 자기주장이 매우 강하고 자신감이 깊어 구세대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세대는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반면, 신세대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분명하다. 또한 자신의 삶을 즐기는 데 떳떳하다. 구세대는 죄책감과 혼동될 정도의 의무감을 가지고 긴장된 삶을 사는 데 비해서, 신세대는 비교적 개인주의적 토대에서 자기가 느낀 대로 행동하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대조적으로 구세대는 사회가 정해 놓은 규범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경계가 명확해서 나이에 맞는 사회적 역할과 문화양식도 분명하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세대 구분은 크게 보아 전통적인 가치관과 형식에 익숙한 구세대와 새로운 가치관과 풍요로운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사는 신세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른바 N세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신, 구세대 구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차별성을 가지는 문화를 동반하는 세대이기 때문이다. N세대 문화의 차별성은 디지털 매체로 대표되는 새로운 매체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소통(communication) 방법의 변화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

## 2. N세대와 디지털 매체

디지털 매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 환경이 사회적 망(social network)으로 정착되고 보편화된 환경에서 성장한 신세대를 일반적으로 N세대라 한다. 베이비 붐 세대나 베이비 버스터 세대가 TV세대라면 메아리세대와 연결되는 N세대는 그 접촉 매체를 기준으로 할 때 컴퓨터 세대라고 할 수 있다. TV는 방송사나 공급자가 공급하는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시청하기 때문에 수동적이지만, 컴퓨터는 채팅이나 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쌍방향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체성이 확보되는 멀티미디어적 디지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N세대 문화를 잘 이해하려면 컴퓨터로 상징하는 디지털 매체와 그에 따른 문화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sup>2)</sup>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디지털이라는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아날로그 시스템은 정보를 전송하면서 음성이나 화면이 원본과 질적으로 달라지지만, 디지털 시스템은 원본과 복사본의 구별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정보의 이동을 보장한다. 이것은 공간적 한계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 또한 시간적 제약을 초월하여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높다. 아날로그 시스템에 의존해서 사회를 유지한 과거 사회에서는 거리나 시간이 정보의 공유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공정하게 하는 물리적 조건으로 작용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획기적으로 극복될

2) Ibid., 59-62.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무한대로 원래 원본에 가깝게 복사되어 전파될 수 있다. 공간적 거리는 무력해지고 나와 세계가 컴퓨터라는 디지털 공간 속에서 연결된다.<sup>3)</sup>

디지털 매체는 삶의 양상을 통합된 형태로 만든다. 컴퓨터를 중심으로 워드프로세서, TV, 영화, 커뮤니케이션 등이 모두 가능하다. 따로따로 하던 것들이 한 매체 안에서 종합하여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요즘 대학생들은 수업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강의듣기를 참 싫어한다. 학기말에 수업평가를 받아 보면, 선생님 말씀 좀 그만 하고 우리 이야기 할 시간을 달라고 아우성이다. 기성세대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에 익숙하지만, N세대는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토론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복합체제는 소위 네트워킹을 통해서 더욱 발전한다. 네트워킹을 이용하면 디지털 사회가 마치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 같으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한 그물망의 사회가 된다. 또한 정보나 문화의 대중화가 보급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탈 대중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매니아니 엽기니 하는 것들이 모두 이러한 현상이다. 컴퓨터를 통해 이제는 내가 보고

3) 참조 김영석, 「정보사회와 뉴미디어」, 『정보사회와 우리』, 59-60.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방식과의 대조를 통하여 그 특성을 간결하게 설명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날로그 방식은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하지만 전기적인 강약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원래 신호가 전기 신호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변환된 신호가 전파나 유선망과 같은 전송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 결과 정보의 왜곡이나 변형이 심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디지털 신호는 “원정보의 재생 능력”과 “다양한 정보간의 상호호환성”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장점을 가진다.

싶은 것을 골라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점점 자기가 탈 대중화되어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특별한 개성을 발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케이블 네트워킹이 백여 개 늘어나고 앞으로 수백 개씩 늘어나는 것은 다 탈 대중화 현상이다. 자신의 취미에 따라서 스포츠 채널 속의 축구, 골프전문채널 등을 보면서 더욱 개인화되고 점차 전문화를 추구한다. 이런 선택은 직업의 전문성으로 더욱 이어져 간다.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N세대 문화는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며 세계의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N세대 문화의 성격, 가치관의 특징

어려서부터 생활 속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자란 N세대는 거의 전세계적으로 나름대로 공통성을 가지는데, 돈 탭스콧은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sup>4)</sup>

첫째, 독립심이 매우 강하다. 때로 개인적이고 분자화된다는 지적을 받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지적인 개방성이 뚜렷하다. 컴퓨터로 연결된 넓은 세계에 살기 때문에 이전 세대가 가지는 문화적 폐쇄성을 이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들은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위험할 정도로 개방성이 강해 세대간에 갈등을 빚지만, N세대는 개방성이 기본이다.

셋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려는 포용성이 강하다. 자유로

4) 돈 탭스콧 op. cit., 140-141.

운 표현과 강한 주장이 함께 나타나고 변화와 개혁을 잘 수용한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며, 가상공간에서는 심지어 자기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다. 아이디어가 여러 개 있어서 한 사이트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이런 사람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다른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다. 더욱이 그 자아가 마음에 안 들면 지워버릴 수 있다.

넷째, 아주 새로운 것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혁신에 익숙하다.

다섯째, 자기 선호도에 따라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게임도 하나의 열정을 쏟을 만한 영역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은 무엇이든 최고가 되거나 능력을 인정받으면 큰 자부심을 갖게 된다.

여섯째,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심도 강하다.

일곱째, 새로운 것이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우 성급하다. 사이버 공간이나 인터넷 네트워킹의 세계는 속도의 세계이기 때문에,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요구한다.

여덟째, 매우 빠른 속도감을 즐긴다. 그렇다고 이들의 속도감을 대책 없는 성급함으로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사실 그들은 항상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통해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확인하면서 신뢰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 네트워킹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뢰 구축인데 여기에는 항상 계속 확인하는 중간 과정이 요구되곤 한다.

위에서의 문화 현상적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N세대의 성격

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첫째 다양성에 대한 수용력이 기성세대에 비해 뛰어나다. 둘째 호기심이 많다. 셋째 자기주장이 확실하다. 자기의존(self-reliance)이 강하다. 이에 비하여 기성세대는 집단적이면서도 의타적인 면이 많다고 볼 수 있다.<sup>5)</sup>

이와 함께 N세대는 다음과 같은 가치관적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개인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높은 가치를 부과한다. N세대는 사교육이나 자기 자신의 비공식교육을 포함해서 자기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받는 것에 일반적으로 상당한 가치를 부여한다. 둘째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상당히 높다.<sup>6)</sup> 예컨대 N세대의 아주 특별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보면 스스로 자신들을 천재 아니면 왕자, 공주라고 생각한다. 셋째 예쁘고 멋있고 당당한 것을 찾아 신체를 기꾸는 일에도 열심이다. 더욱이 신체적인 조건에 높은 가치관을 부여한다.

#### 4. 예상되는 세대간 갈등

돈 탭스콧은 무조건 1977년부터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N세대를 나눈다. 왜냐하면, 그에 의하면 기성세대는 아무리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해도 N세대처럼 컴퓨터를 주어진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접한 것이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사용, 활용한 세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성세대는

5) Ibid., 153-155.

6) Ibid., 160-161.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기도 하지만 글 교정을 할 때는 프린터를 해서 종이로 봐야지 그때부터 잘 보이곤 한다. 그러나 컴퓨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컴퓨터와 모니터를 통해서 교정을 보고 모니터로 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처럼 N세대 문화는 점차 세대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으므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점점 N세대 문화가 널리 퍼져 가면서 세대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성세대는 N세대들에게 점차로 기독교의 위협을 느끼게 된다. 그들의 높은 자기의존심과 능력, 독립심은 모든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기성세대에게 강력한 도전세력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새로운 매체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에 대한 갈등이 생긴다. 공중파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에서 관리자와 설비와 규칙은 기성세대에게서 이뤄지는 데 반해 활용의 주체는 N세대이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소유와 통제와 수익을 누리는데 비해 N세대는 너무나 익숙하다.

셋째, 기성세대는 흑백논리에 익숙한 데 비해서 N세대는 아무런 무리 없이 문화적인, 또는 형식과 내용의 다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와 같은 문제도 인권이나 개인적인 성에 대한 취향의 문제로 인식한다. 이런 점에서는 교회나 기성인들과 확실히 차별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성경의 가치관에 어긋난다고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도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다 자연스럽고 간접 또는 직접경험을 통해서 접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여기는 것이다.

## II. 신학적인 관점에서의 N세대 조명

이른바 신세대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주류층으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기독교는 매우 큰 위기감에 젖어 들었다. 특별히 이들이 누리는 문화가 포스트모더니즘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선교적 위기론이 대두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는 종교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첨단과학의 혜택을 받으며 자란 이들도 신비의 세계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N세대 문화에서 종교로 관심이 이어질지 예상해 보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그 관심이 지속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먼저 기성 종교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담은 이른바 ‘안티 기독교’의 움직임이 활발하여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은 사이버 공간에서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기성 제도권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 부정적 비판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여전히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관심이 없다면 아예 비판적 관심도 나타내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러한 사이트들이 흥미를 끌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N세대 문화에서는 여전히 신비한 경험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정통 기독교나 교회의 가치관과는 다르지만, 뉴에이지나 요가, 도 등 인간의 구원과 수양, 영혼의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욕구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더욱 급증하고 있다.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의 전생의 문제라든지 영

혼의 문제를 계속 다루는 것을 보면 여전히 N세대는 종교 경험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간파할 수 있다.

### 1. N세대 문화의 종교적 특징

N세대가 활동하는 문화적 환경은 종교적 신비나 영혼의 문제가 왜곡된 상태 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종교성이 존재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왜곡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수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분석적 시도가 요청된다.

첫째, N세대는 기성·제도적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며 지금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기존의 가치관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다. 예컨대 인터넷에서는 기존 종교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기성 종교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성직자에 대한 비판이 성행한다. 이것은 N세대 문화에서 권위에 대한 비판의식이 매우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sup>7)</sup>

둘째, 종교적 특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집단적 경험보다는 개인의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의 패션에서 나타나는 개성들을 보면 ‘튀고 싶다’라든지 ‘나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것 같다. 이 역시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N세대들이 갖는 문화적 다양성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N세대들이 즐겨하는 패션 중 ‘배꼽티’라는 것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읍기 40장 16절과 잠언 3장 8절에서와

같이 허리와 배꼽은 자아 중심과 생산의 상징을 의미한다. 특별히 여성에게 있어 배와 배꼽이 갖는 생산적 의미가 드러나면서 사회에서 은폐되었던 성을 노출하겠다는 욕구로 나타나는 것이다. 더욱이 귀걸이처럼 배꼽걸이는 육체 경험을 강조하며, 인간의 가장 중심적 부분이자 가장 은밀한 부분에 분명한 지취를 남김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겠다는 강렬한 자기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sup>8)</sup>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N세대는 스피드를 추구한다. 디지털 세상에서 스피드는 리얼리티(reality) 즉 진짜를 만나겠다는 욕망이 되고 초월 체험을 원하는 욕구가 된다. 종교적인 의미의 차원에서 본다면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이 N세대들이 즐기는 춤동작에서도 찾아질 수 있다. 따라서 N세대 문화는 기계적인 듯하지만 사실 분석해 들어가 보면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안에는 초월적 경험을 맛보려는 욕구가 스며 있다. 그것은 N세대 문화가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림으로써 초래된 미래에 대한 불안 해소할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이 몸에 새기는 문신도 바로 이러한 욕구, 즉 영원에 대한 욕망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해석될 수 있다.<sup>9)</sup>

셋째, N세대는 인류의 병, 죽음, 고통의 문제를 통해 종교를 인식한다. 매체를 통해 아프리카의 어려운 환경이 자주 전해지면서 고통의 존재에 대한 종교적 탐색을 시도한다. 일반적으로 N세대는 특정 종교에 대한 진리나 교리를 통해서 중

7) Tom Beaudoin, *Virtual Faith: The Irreverent Spiritual Quest of Generation X*(Jossey-Bass Pub., 1988), 51-72.

8) Ibid., 73-79.

9) Ibid., 86-87.



교를 경험하기보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나 진리의 문제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한다.<sup>10)</sup>

넷째, N세대의 주요한 종교적 특징은 모호함이다. 예전에는 정통성이 중요했던 반면, N세대 환경 속에서의 신앙은 다원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을 검색하면 하이퍼텍스트로 바벨론 신화나 여러 경향의 신학자들의 견해나 비판적 정보가 동시에 제공된다. 이런 환경에서 교회가 특정한 교리적 차원의 가르침만을 고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가장 근본적인 도전이며, 이를 위해 교회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바른 해석과 신학적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하이퍼텍스트의 정보력은 앞으로 기독교가 선점하여 확보하지 않으면 N세대들에게 용이한 접근을 통해서 반기독교적 오해들을 확장시킬 것이다. 더욱이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N세대들에게는 성경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기성 교인들처럼 단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질문과 도전을 할 것이다.<sup>11)</sup>

또한 N세대 문화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불안정하다. 근대 이전에는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공간이 떨어져 있는 만큼 시간도 걸리고 각 지역은 나름대로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다. 하지만 근대 기술의 발달은 점점 거리와 공간을 좁혔다.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변화개념은 세대마다의 옷차림을 통하여서도 반영되고 있다. 예컨대 X세대는 꼭 끼는 옷을 통

해 그 옷에 갇혀 있는 존재의 속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반면, N세대는 자기 몸보다 큰 옷과 신발을 애용하고 있다. 이것은 큰 옷을 통해 성인으로 대우받기 원하면서, 성숙을 지향하는 그들의 욕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는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N세대의 마음깊이 자리하고 있는 불안을 패션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자아 정체성의 모호함이다. 예컨대 복수의 아이디는 서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감당한다. 또한 사이버 상에서 자살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든지 실제로 사이버 상의 자아를 쉽게 죽인다든지 하는 현상들은 N세대 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체성의 모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어렵지 않게 또 다른 자아를 탄생시키는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실제와 가상이 헷갈리고 나중에는 실제 자살과 가상 자살이 헷갈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가능한 것이다.

또한 성적 정체성에 있어서도 그들에게는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이 되어 사이트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가진 여성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들에게 성은 Sex(생리적 성)가 아니고 Gender(사회적 성)로 결정하며, 자신이 가진 49%의 여성성을 개발하여 나중에는 자기 안에 두 성(性)이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런 모호성은 자아와 성 정체성과 인격과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보딜리야르의 시뮬라크룸(Simulacrum) 즉 시물레

10) Ibid., 96-110.

11) Ibid., 121-142.

이전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면, 미국의 개척시대 모습을 디즈니 만화를 통해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이야기는 시뮬레이션으로 비슷하게 만들어 낼 뿐이다.<sup>12)</sup>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든 다 가져다가 사용한다는 의미로서 레비 스트로스의 브리콜라쥬(Bricolage) 개념으로 살펴보면, 종교적 의미로 십자가를 쓰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장식의 대상으로도 종교적 상징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필요하면 필요한 상징물로 전용할 수 있는 문화에 익숙한 N세대는<sup>13)</sup>, 브리콜라쥬 특성의 한 예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이질감도 상관없이 전용된다. 모든 음악적 양식과 춤 형식이 찬양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N세대 문화는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더불어 세계화라는 현상과 직,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전에는 직장과 노동시장이 종신고용의 개념으로 존재했었는데, 세계화된 상황 특별히 WTO체제가 세계시장을 장악하면서 직장과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요구되었으며, 언제든지 이직과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 바로 이러한 경제사회적 환경이 N세대의 다양성 또는 상대화 기조를 강화시키는 조건이 된다.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했던 몇몇 가치관들, 예를 들어 장유유서와 같은 가치관은 세계화된 환경 속에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그 준거가 바뀌어 능력과 실력을 우선하는 다른 도덕적 규칙이 생겨났다. 이처럼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형성된 N세대 문화가 담고 있는 가치

12) Ibid., 148.

13) Ibid., 149.

의 기준과 다양성은 훨씬 더 상대화의 폭이 넓고 크다. 기성세대와 같이 정통성을 추구하는 영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흐름이 아닐 수 없다.

## 2. N세대가 추구하는 영성과 교회의 역할

N세대들은 기회와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난 세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확장된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 삶은 그들에게 오히려 끝을 알 수 없는 위기감(crisis of limit)을 느끼게 한다.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가 종교적이며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N세대의 인생의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이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가 모호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교회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의 섭리 속에서 세상을 주도하시며 심판하시고 섭리하신다’는 분명한 복음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해 주면 N세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N세대가 추구하는 영성은 매우 보편성을 띠는 사실이다. 자기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여러 종교적 가치와 기준들을 전용하여 혼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위치와 질문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러한 N세대 영성의 혼란함은 현대 사회에서는 주로 소비문화로 나타난다. 즉 소비와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늠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날이 농후하여진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교회는 소비적 영성에서 생산적 영성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N세대는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에서 사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익숙하기 때문에 스스로 소비문화의 폐해를 자각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이들을 소비적 영성에서 구출하여 일차적으로는 소비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이차적으로는 바른 소비를 통해서도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교육해야 할 것이다.

### III. N세대문화와 병영문화의 상관관계

21세기의 병영문화는 병영에 거주하는 이들에 의하여 형성된다. 그런데 이들 중 대부분은 이른바 N세대에 속하는 이들이다. 그러므로 병영문화는 곧 N세대 문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게 된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갈등이 병영문화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별히 영관급 이상의 장교들이나 40대 이후에 속한 직업군인들과 N세대 병사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는 병영문화에서 지속적 갈등의 요소가 될 것이다. 더욱이 이른바 장유유서가 바탕이 된 전근대 문화적 요소가 주축을 이루는 전통적 병영문화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N세대 문화에 속한 이들과의 만남과 그들을 지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N세대 문화에 대한 분석을 참고하여 건설적 병영문화의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1. 예상되는 병영문화에서의 갈등

무엇보다도 N세대 문화의 영향권에서 자란 세대는 독립심이 강하며, 자기주장이 확실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군대의 병영문화는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는 수직적 문화였다. 이러한 기존의 수직적 병영문화와 자기중심적이면서 자기주장이 확실한 새로운 세대의 문화가 만나게 되면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또한 수직적인 문화는 일반적으로 확일성과 경직성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독립심과 지적인 개방성이 뚜렷한 세대는 다양성에 대한 수용력이 뛰어난 수평적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수직적 문화와 수평적 문화와의 만남은 전에 볼 수 없던 심각한 갈등양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N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하여 새로운 것들에 대한 지적이며 정서적인 개방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에도 열심이다. 이러한 세대에게 병영이라고 하는 세계는 너무 정태적일 수 있고, 자신의 개발이 정지 내지는 후퇴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병영문화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도력의 문제일 것이다. 디지털 세대의 문화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못한 기성세대가 과연 얼마나 N세대들에게 지적인 우월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도 큰 의문이다. 사실 지도력이란 전문성과 도덕성에 있어서의 우월성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이다.

#### 2. 21세기 병영문화의 변혁을 위한 방향제시

무엇보다도 병영문화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인 지휘관들은 새로운 문화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별히 디지털 세대인 N세대에 대한 특성과 그들의 문화적 내용들에 대한 이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N세대들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 판단과 군 특유의 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병영문화는 N세대들의 가장 큰 관심인 자기 개발에 개방적인 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N세대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절제된 삶과 훈련을 통한 자기 몸 가꾸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체계적인 자율적 훈련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휘관들의 탁월한 지도역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탁월한 지도역량의 전제조건은 도덕적 탁월성과 전문성이다. 병영문화의 맥락에서 본다면 도덕적 탁월성이란 술선수법의 실천과 이웃 돌봄의 삶을 체질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전문성이란 병사들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 판단, 즉 문화를 이해하면서도 군이 요구하는 전체적 목표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지식과 지혜를 의미한다. 이 때 지도자가 병사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사이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기억함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병영문화는 소비문화에 침몰되어 가는 우리 N세대 젊은이들에게 소비를 넘어서 존재하는 가치의 세계를 맛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병영문화를 통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절제와 나눔을 통한 진정한 삶의 의

미를 맛볼 수 있다면 병영문화는 우리 사회와 나라의 앞날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병영문화를 통하여 젊은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만이 아닌 오프라인에서의 만남, 그것도 맘을 흘리며 부딪히는 만남이 주는 삶의 새로운 의미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만남들을 통하여 파편화해가는 이 사회에서 진정한 공동체적 삶을 맛볼 수 있다면 병영문화는 공동체 상실이라는 큰 위기에 처해가는 한국 사회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데에도 결정적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맺는 말

##### 21세기 새로운 세대의 문화와 병영문화 변혁을 위한 교회의 역할

교회는 N세대를 ‘문제아’ 내지는 ‘타락한 탕자’로 여기는 배타적이고도 공격적인 자세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N세대는 우리 사회의 미래의 주역이자, 교회의 입장에서선 선교 2세기의 주역이다. 교회는 오히려 이들을 섬김의 대상으로 선언해야 한다. 여전히 종교적 욕구를 가진 N세대들에게 그들의 방식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기독교의 가치관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자면 근본적으로 그들을 우선적인 교회의 섬김과 교육의 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N세대를 섬기기 위해 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과감한 방향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은 더욱 더 섬기며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N세대가 기성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회의하는 이유들을 들어보면 기존의 교회가 수용해야 할 점들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전통적이며, 장유유서적인 관점에서 권위만을 내세우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가 N세대에게 접근할 때는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며 공감하며 함께 행동하는 여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이버 영역을 선교의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은 새로운 선교지이다. 먼저 선점하는 세력이 이 공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유로움과 새로움과 다양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교회들이 쉽게 영역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이버 영역은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마지막 ‘땅 끝’인 셈이다. 그 영역은 권위와 전통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독교가 가진 우수한 가치관과 문화로 채워야 할 것이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적극적인 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통전적 영성, 즉 몸과 영혼, 세상과 교회와 같은 이원론적 도식을 극복하는 온전한 성경적 영성을 보급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영성훈련의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하며, 전 교회가 이를 중심으로(문화적) 삶의 갱신이 있어야 한다. 육과 영혼이 분리된 채 독립적으로 관심을 표명하는 풍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욱 통전적이고 성경적인 영성으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성령의 체험을 통해 통합해야 한다.

넷째,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지표에 현대교회는 더욱 민감하게 대

처해야 한다. N세대는 변화를 원하고 기존의 구태의연하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갱신을 추구할 때 젊은 세대 특별히 N세대가 갖는 갱신의 방향과 접촉점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교회가 N세대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편입되거나 일방적으로 수용하려는 입장도 바르지 않다. 교회는 항상 복음을 보수하되, 새롭게 해석하고 현실에 맞게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이 가장 합당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노력은 아직도 민족복음화를 위한 ‘황금어장’으로서 존재하는 병영에까지 미쳐야 한다. 한국 교회가 병영문화의 기독교문화로의 변혁에 노력하는 만큼 한국 사회와 문화의 복음화는 진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대간의 갈등을 포함한 다양한 갈등으로 공동체적 문화 붕괴의 위기에 처하여 있는 대한민국의 변혁은 젊은이들이 한 번은 거쳐 가게 되는 병영문화의 변혁을 통하여 더욱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